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 송 | 말라 3,1; 1역대 29,12 참조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제1독서 | 이사 60,1-6

화답 송 | 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

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2독서 | 에페 3,2.3.5-6

복음환송 | 마태 2,2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 음 | 마태 2,1-12

영성체송 | 마태 2,2 참조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 서울대교구장

아기로 오신 하느님이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오늘, 별의 인도로 만백성 앞에 드러내 보이신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대로, 동방의 세 박사들이 별의 인도로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황을 처음 시작하시며 요르단 강에서 세례받으신 사건, 그리고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표징이 되는 기적을 처음으로 행하신 사건입니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밝히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주님 공현 대축일에 기억하는 이 사건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째서 중요한 사건이 될까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느님께서 우리를 빚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장 잘 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성탄은 그 하느님께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대사건이고, 오늘 주님 공현은 그 아기가 실은 하느님이심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아기들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변의 보호와 도움 없이는 자라날 수 없는, 약하디약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약한 갓난아기

가 방실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약하디약한 갓난아기는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래 있는 '착한 본성'(善性)을 일깨웁니다. 아기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지만, 더불어 엄마, 아빠도 아기들을 키우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원래 있던, 그러나 고단한 삶의 긴 여정 속에 많이 퇴색되고 잃어버린 착한 본성을 다시금 일깨우면서, 우리도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합니다.

전례력으로는 오늘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주님 공현 사건을 대축일로 기리고, 그다음 주일에 주님 세례 축일을 보낸 후, 일상의 연중시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가난하고 약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는 하느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연중시기를 통해 그 사랑을 매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가라는 의미가 전례력 안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아기로 우리에게 오시어 가장 여리고 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시는 하느님,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바로 '우리 곁에 계신 또 한 분의 예수님'에게 눈을 돌려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 안에서 우리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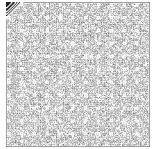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태 2,2)**



사진은 독일 쾰른대성당 내 '동방박사의 소성당'에 있는 동방박사의 경배 그림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동방박사들과 같이, 왕을 상징하는 황금과 하느님을 상징하는 유황과 고통을 상징하는 몰약을 예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기쁜 삶의 여정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이서원 프란치스코
한국분노관리연구소장

| 즐겁게 기다려주시는 하느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지금은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부님을 처음 만난 건 기다림을 통해서였습니다. 신부님은 수도자로서 신학대학원 상담심리학 수업을 듣는 저의 제자였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신부님이 찍은 사진 한 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는 시간, 중년의 한 남자가 오래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신부님은 그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긴 시간 카메라를 들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본 계기로 신부님과 도서 「보이는 마음」의 공동 저자로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수도자가 되기 전 사진작가였다는 신부님은 사진은 기다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장면을 카메라 앵글에 담기 위해 울지 안 울지도 모를 순간을 한없이 기다리는 일이라는 거지요. 기다린다는 말이 제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그 후 저도 신부님의 사진을 기다려 사진에 제 글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탄 중년 남자의 사진에는 '달리는 것은 바퀴인가, 자유인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먹고살기 쉽지 않은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남자가 올라 달리는 자전거는 단지 바퀴가 아니라 바람과 순간순간 달라지는 풍경을 느끼는 자유를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부님에게 그렇게 기다리면 힘들지 않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은 원하는 한 장의 사진을 위해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은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기다리는 일도 기약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재촉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어려움과 고통을 뚫고 하느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를 하느님께서 말없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신부님과 사진 에세이를 함께 써나가면서였습니다. 신

부님의 사진 말에 제 글 말을 다 합한 후에도 책으로 내줄 출판사를 기다려야 했고, 출판사가 정해진 후에도 출간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며 출간된 후에도 독자들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늘 즐거웠습니다. 신부님이 기다리는 일은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려준 덕분이었습니다.

신부님과 만난 이후로 인생이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엄마는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요. 세상에 나오면 앓기를 기다리고, 앓으면 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학교에 가기를 기다리고, 취업하기를 기다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간 제 기다림은 늘 초조함과 불안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즐겁게 기다릴 수 있었을텐데 싶습니다. 요즘 저는 저를 즐겁게 기다립니다. 하느님 닮은 좋은 삶을 살아가는 저를 즐겁게 기다리고, 가족들과 성가정을 이루는 저를 즐겁게 기다립니다. 앞으로도 기다리는 일은 늘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속과 제 밖의 참 좋은 세상을 즐겁게 기다립니다.



류상애 아녜스 수녀 |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1

그리스도교란 무엇인가?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그리스도교에는 여러 분파가 있는데, 가톨릭교회는 그중 하나입니다. ‘가톨릭교’는 ‘천주교’, ‘성당’, ‘구교’(舊敎) 등으로 불리는데, ‘가톨릭’(catholica)이라는 단어는 ‘보편된’, ‘일반적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등의 뜻입니다. ‘천주교’라는 이름은 16세기경 가톨릭교회가 동양에 전래되면서, 하느님(Deus)이라는 개념을 하늘(天)과 연결시켜 ‘천주’(天主)라는 이름으로 쓰면서 유래된 것이며, 이후 ‘천주교’라는 명칭으로 이어졌습니다. 간혹 ‘개신교=기독교’, ‘가톨릭=천주교’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리스도’(Christus)교를 한자로 음독한 것이 ‘기독교’(基督敎)이기에, 그리스도교 내지 기독교에는 가톨릭교회서방교회, 정교회동방교회, 개신교회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가장 완벽한 답은 초대교회의 세례식에서 행해진 교육 내용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란 우상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교란 1. ‘우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상’(偶像, Idol) 숭배란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처럼 여기는 모든 태도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능력에 대한 지나친 믿음, 돈과 재물에 대한 집착, 혹은 과학과 기술 만능주의 등은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데, 오늘날에는 마치 하느님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재물이나 과학을 무조건 멸시하고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마치 하느님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

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되는 것입니다. 봉어뿔에는 봉어가 없어도 되지만, 그리스도교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핵심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꼭! 언제나! 그리스도교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며, 결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 ‘한 분 하느님을 섬기는 것’ –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하느님, 즉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고 따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신명 6,4)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물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교란 인간의 근본적인 물음, 즉 삶과 죽음, 그리고 의미와 목적에 대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답을 찾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말씀’, 즉 ‘로고스’(logos)라고 하는데, 이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logos)을 인간이 서로 나누는 것이 ‘대화’(dialogos)이고, 이 대화를 통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 인간 상호 간의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교란 ‘말씀’(로고스)을 통해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친교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길, 진리, 생명이라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치료비 지원사업

“유미 가족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유미(가명, 여, 19세)의 처음 발병은 10세 무렵의 간질 발작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딸아이의 갑작스런 상태에 놀라 찾아간 대학 병원에서는 약만 잘 먹으면 좋아질 거라 하여 꾸준히 약 복용을 해왔습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긴 했지만 평범한 일상을 지내며 아이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휘청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더니 이후 하루가 다르게 보행이 어려워지고 말도 어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중도 급격히 줄어들어 팔다리의 앙상한 뼈대가 보일 정도로 아이의 상태는 계속 나빠져 갔지만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유미의 갑작스러운 상태를 알기 위해 몇 년간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모두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은 한 대학 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은 ‘치상핵적핵담창구 시상하부 위축증’이라는 희귀 난치성 유전 질환이었습니다. 이 질환은 간질, 소뇌 실조, 운동장애, 치매 등의 증상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발현하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불과 몇 명밖에 보고되지 않은 희귀 질환입니다.

현재 유미는 보행 장애로 인해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목 삼킴 기능도 떨어져 밥을 먹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유미 엄마는 영양 섭취도 걱정이지만 하루에 많은 약을 복용해야 하는 아이가 약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다 보니 혹시 증상이 악화될까 매일

불안합니다.

유미의 퇴행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유미네 형편에 매달 150만 원의 약 값과 추가로 필요한 재활 치료비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더욱이 최근 아빠가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치면서 당분간 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엄마의 근로소득으로만 가족의 생계와 치료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엄마는 야간근무를 시작했지만, 자신의 몸이 힘든 것보다 힘든 치료과정을 견디는 딸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현실이 미안할 뿐입니다.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은데 견지도, 말하지도, 이젠 먹지도 못하는 딸을 바라보는 게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유미의 예쁜 눈망울과 밝은 미소를 보면 절대 희망을 놓지 않고 싶습니다.”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죽을힘을 다해, 우리 유미랑 손잡고 걸을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따라, 유미네 가족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신자 여러분의 온정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아주신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유미 양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총지원금 3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아진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지원됩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80-003488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22년 1월 1일~2월 4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유미(가명)’를 위해 쓰여집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독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영화칼럼

영화 '뷰티풀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
화가 납니까?

이대현 요나 |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보면서 로이드도 마음을 엽니다. 화를 녹여버리니 소중한 가족이 보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보입니다.

편한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가슴 깊이 와 닿는 것은 로저스로 분한 노배우 톰 행크스가 특유의 어눌한 말투와 동요로 전하는 메시지가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이해하고, 쓰다듬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난 로이드와 기꺼이 '이웃'이 되어 그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겸손한 모습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은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 주지 않으면 아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최고의 양육은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지 생각해보고 아이들이 겪는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어서 특별합니다. 전 이 모습 그대로를 참 좋아합니다.”

삶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고, 화날 일도 많습니다. 로저스는 그럴 때,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않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많다고 했습니다. 찰흙 덩어리를 주먹으로 치거나, 피아노 건반을 열 손가락으로 ‘궁’하고 두드리거나, 전속력으로 수영을 하거나.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자(聖者)는 아니니까요.

로이드에게서 제 모습을 봅니다. 신문기자로 글에 날을 세워 찌르기에 매달렸던 그때는 몰랐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나의 상처였음을. 5년 전(2016년)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의 신앙 체험 수기(대상 수상)를 쓰면서 다짐했지만, 이따금 글에 가시가 톡톡 나옵니다. 어리석게도 버리지 못한 화가 있나 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사소한 일에 흥분하고, 소

리 지르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아무 상관 없는 타인에게,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무턱대고 화풀이를 하는 비열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화를 참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참고 쌓아두면 한국 사람에게만 있다는 ‘화병’에 걸리거나,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거나, 어느 날 한꺼번에 폭발해 더 큰 화(禍)를 불러옵니다.

영화 <뷰티풀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의 잡지 기자인 로이드도 가슴에 화가 가득합니다. 그 화는 죽어가는 엄마와 어린 남매를 두고 오래전에 집을 나간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 상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고립된 인간관계, 세상에 대한 냉소, 대화가 아닌 주장, 일에만 몰두하기,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글로 대신합니다. 그 글로 때론 아무도 못 보는 진실을 밝혀내고, 망가진 세상을 고치게 하고, 연말에 특집 기사 상까지 받으면 뭐 합니까. 정작 자신은 망가진 사람인데. 그가 자조(自嘲) 하듯 ‘사회 부적응자’로 아내와 어린 아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모두가 인터뷰를 꺼리는 외톨이로 ‘악명’만 높아져 가는 데. 그런 그가 내키지 않은 한 인물을 만나면서 바뀝니다. 어린이 TV쇼 <미스터 로저스의 이웃>의 진행자 로저스입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로저스는 TV쇼에서 ‘좋은 날, 최고의 이웃’으로 그를 맞이해 일방적 질문과 대답(인터뷰)이 아닌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상 못한 상황을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TV쇼에서의 로저스와 실제 삶에서의 로저스를

과학만능주의 시대와 우리의 신앙

김도현 바오로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학문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이성적인 추론과 보편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세상과 자연의 이치를 따지고 탐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특별히 과학(science)이라고 부르면서 그 학문적 가치를 높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을 그 대상으로 탐구하는 자연과학은 오늘날에 들어서 우리 삶에 더욱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는 자연과학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이성적 추론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고 관찰 불가능한 여러 가지 것들, 특히 신과 여러 영적 실체들(천사, 영혼 등)의 존재 및 신앙의 전통적 가르침들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면서 점차 신앙과 멀어지는 양상을 보여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 하에서 이제 다음의 질문이 올라오게 됩니다: 과학은 과연 이 세상의 모든 사실들을 언젠가 때가 되면 정확히 다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대와 같은 과학 시대, 특히 소위 “4차 산업 혁명 시대” 혹은 “AI 시대”라고 부르는 바로 이 시대에 과연 우리의 신앙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과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실은 인간의 신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신념을 우리는 ‘과학(만능)주의’

(scientism)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질문들에 답을 해 주고 있을까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종교, 신앙의 영역조차도 과학에 그 자리를 넘겨주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소위 과학만능주의가 주는 심각한 폐해의 영향 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가톨릭교회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주요 종교들의 일선 현장에서 젊은이들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본당의 사목 활동, 특히 주일학교의 운영 방식을 거론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학교와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익힌 과학만능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더 이상 종교, 신앙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과학만능주의가 우리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에 대해 필요한 만큼 많이,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만능주의라는 신념까지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일년간 쓰게 될 글은 바로 과학만능주의를 걷어낸 과학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오늘(1월 2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동방의 세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를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공적으로 드러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매년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에 이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묘원 성묘 안내

1) 용인추모공원 설 성묘 안내 / 미사: 1월 30일(주일) 10시 성묘 승차권을 묘지관리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전화예약(02)727-2225 후 송금하셔야 자리배정이 가능합니다. 관리비가 미납되신 분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장기 미납시에는 무연고 처리됩니다. 식사 및 성묘 개별준비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묘원 경당(김수환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차량 도착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요망

성묘객 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승차권 예매: 1월 3일(월)부터 선착순 자리배정(1매 2만원-좌석 띄어앉기로 인한 조기마감 및 차량비 변동 가능)
마스크 미착용 시 차량 탑승 및 경당 출입이 제한됩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고 현장으로 오시는 분은 미사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미사 참례 인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은 참례 인원 제한에 따라 참례하실 수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 우리은행 454-003267-13-159 (재)천주교서울대교구
문의: 02)727-2225 묘지관리과

2) 천주교 비봉추모관 설 성묘 안내

미사: 1월 30일(주일) 오전 11시, 비봉추모관 1층 참례를 원하시는 분은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및 도림동성당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미사 참례, 봉안당 출입이 제한됩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고 현장으로 오시는 분은 미사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미사 참례 인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은 참례 인원 제한에 따라 참례하실 수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사관련 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김택암(베드로) 신부님 선종



서울대교구 소속 김택암(베드로, 83) 신부님께서 지난 12월 22일(수)에 선종하셨습니다. 김택암 신부님은 1939년 중국 청도에서 출생하여 1967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중림동(현, 중림동 약현)성당, 일산(현, 의정부교구)성당, 수색·여의도동·용산·연희동성당 겸 제2지구(현, 제2 서대문-마포지구) 지구장, 문정동·하계동성당에서 사목하시다가 2006년 원로사목자가 되셨습니다. 장례미사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63년 1월 7일 김영식 베드로 신부(54세)
- 2000년 1월 5일 박은중 요한 신부(40세)
- 2015년 1월 8일 최용록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87세)

교구청알림

서울대교구 ‘온라인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http://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접수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서울대교구 사목 상담, 대면 수업

주제: 자존감 되찾기
때: 1월8일~4월9일 매주(토) 오전 10시~12시
강사: 문종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2-1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서울대교구 신자 /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www.catholicpolice.or.kr) 참조
교육기간: 2월9일~7월6일 매주(수) / 20주 과정
교육장소: 가톨릭회관(명동)
신청기한: 1월28일(금)까지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직장인 금요미사 안내

때, 곳: 매주(금) 12시15분, 문화관 2층 소성당(명동)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매일 첫째주(화) 1월4일·2월1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미사 참석 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절두산 순교성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월례미사 및 해밀가족 모임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월례미사 / **문의:** 02)921-5094

1월3일(월)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1월10일(월)	오전 10시30분, 김음동성당
1월17일(월)	오전 10시30분, 광장동성당
1월24일(월)	오전 10시30분, 양천성당

2) ‘해밀’ 가족모임 안내

범죄로 인해 가족을 잃으신 분들을 위한 모임을 함께 합니다 / **문의:** 02)921-5093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讎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01차 미사 1월4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사리원 본당, 정봉 본당 / **문의:** 02)727-2420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유튜브’ 앱 실행→‘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2022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상반기 교회음악가자격증 과정 모집

서울대교구장 인준의 전문(초·중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구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콘서트토리 과정)
대상: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기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원서접수: 1월10일(월)~21일(금)
접수방법: 아카데미 사무국 전화문의 요망
문의: 02)393-2213~5(<http://www.casm.site>)

개강일정	3월 개강
교육방법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학기운영	3학기 과정 / 직장인을 위한 주중 저녁 / 주말반 운영
입시일정	원서접수 → 면접전형(실기) → 합격자발표 → 등록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김이선 개인전: 1전시실
제9회 예림 작품전: 2전시실
전시일정: 1월5일(수)~10일(월)
예수성심프로젝트: 3전시실
전시일정: 1월5일(수)~17일(월)

2022년 명동대성당 하반기 혼인 예약 안내

7월~12월: 1월14일(금) 14시, 대성당
(오후 1시 대성당 입구에서 추첨 순서번호표를 나눠드립니다)
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중 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마지막 순서로 배정됩니다)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 ·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 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774-1784
추첨 일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준단체 알림

모임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침묵 · 대월기도 영성수련

때, 곳: 1월7일(금)~9일(일)·1월21일(금)~23일(일)·2월 4일(금)~6일(일)·2월18일(금)~20일(일),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주최) / 문의: 032)465-0835, 010-2505-4702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대침묵 피정

내용: 공동기도수행, 강의, 영적지도 / 문의: 02)990-1004
때, 곳: 1월6일~9일·1월20일~23일·2월10일~13일·2월 24일~27일(각 3박4일),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우이동)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세~40세 청년 신자
때, 곳: 1월9일(일) 14시~17시, 평신도선교사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 문의: 010-3817-0567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 010-9363-7784 글라라
때, 곳: 1월7일~10일·1월14일~17일·2월25일~28일·3월11일~14일·3월25일~28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용)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2022년 신년 맞이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내용: 미사와 성체조배(성체거동)
대상: 청년 및 가톨릭 신자 누구나 참여 가능
때, 곳: 1월8일(토) 15시~17시, 가톨릭회관 1층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주최: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AYG)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1월1일~31일까지 / 문의: 010-8874-7970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눈꽃산행피정: 1월21일~23일, 1월28일~30일, 2월 6일~9일, 2월12일~14일, 2월19일~22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때: 3월6일~8일, 3월17일~19일, 3월26일~28일, 3월30일~4월1일, 4월4일~6일, 4월10일~12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98차	1월28일(금)~2월5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99차	2월18일(금)~26일(토)	
제100차	3월18일(금)~26일(토)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예수마음 피정의 집(문산)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1월22일(토)~23일(일), 3월5일(토)~6일(일)
3박4일	1월6일(목)~9일(일) 4박5일 2월14일(월)~18일(금)
8박9일	1월12일(수)~20일(목), 2월4일(금)~12일(토)-신학생 피정
40일	3월10일(목)~4월18일(금)

교육

성물조각 · 목세공 · 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새천년복음화학교 146기 1단계 개강

때: 1월25일(화) 오후 2시 / 회비: 7만원
수강문의: 02)753-8765, 02)2096-0410-0411

서울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때, 곳: 3월 봄학기 개강부터 매주(목) 15주, 가톨릭회관 / 문의: 010-9590-4560, 010-5236-5493

임환우를 위한 특별 피정 교육 / 문의: 043)211-2113

접수: 1월10일~14일 / 1월부터 교육 실시합니다
때, 곳: 1월17일~22일, 성모꽃마을(주최)

성바오로수도회 말씀학교 영성강좌

내용: 마르코 복음 / 문의: 010-6287-9753
때: 3월3일(목) 10시~12시30분(미사 포함)
곳: 성바오로 수도회 본원 / 회비 없음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월11일(화)~2월9일(금) / 인원: 20명
대상: 상호문화교육 희망자 및 이주배경 청소년
전형 일정 학교 홈페이지 참조 / 문의: 061)432-9241

미사반주자 오르간 교육

곳: 9강동지구오르간교육연구소(주최) 천호동성당 내
문의: 010-3203-8183

가톨릭상지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정시 1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원서접수: 2021년 12월30일~1월12일 / 입학문의: 054)851-3021(http://www.csj.ac.kr) 입학홍보처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때: 3월~12월 /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7.5%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강 지급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람·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 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년 전7(2차) 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 상담, 한국어, 유아, 특수, 직업특수, 평생
모집: 2021년 12월27일(월)~1월16일(일)까지
면접: 1월21일(금) 17시 / https://ged.catholic.ac.kr
문의: 02)2164-4173·4176·4787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내용: 점검고시 및 수능준비, 자기계발(메이크업·목공·보컬·영상·사진·댄스·영어대화 등)
자원봉사자: 대학생 이상 성인, 수학·과학 학습 지도 가능하신 분 / 문의: 02)382-5652 서울형대 안교육기관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

예수회 이나시오영성연구소 프로그램

내용: 영성, 교리, 신학적 기초와 심화학습, 수행으로 초대
담당: 권효섭 신부 / 홈페이지: http://inogopress.kr
때: 2월8일(개강 예정)부터 매주(화) 14시~16시
곳: 비대면 온라인 / 1월28일(금) 16시까지 선착순 접수
문의: 02)3276-7799 (월~금) 10시30분~16시

김대건 안드레아 성서 아카데미(욥기)

주제: 욥기 / 강사: 가톨릭대학교 교수
대상: 신자 및 성서에 관심 있는 분(선착순·백신접종 완료자로 방역지침상 허용 인원) / 회비: 4만원(교재비 포함)
때: 2월3일~4월28일 매주(목) 11시~12시30분(13회)
곳: 반포4동성당 대성전 / 1월22일(토)까지 직접 방문 접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의: 02)3482-2255 반포4동성당 사무실

2022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선교사(교리교사) 자격 수여
접수: 1월18일(화)까지 / ci.catholic.ac.kr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교리교육 학과	주 5일 주간(2년)	세례 3년 넘은 전전자 입회 2년 넘은 수도자
종교교육 학과	주 4일 야간(2년)	타 대학에 적이 없고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신학심화 과정	주 3일 주간(1년)	본원 교리·종교학과 준한 과정 이수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2차 신·편입생 모집
문화영성학(석사학위과정) / 전공: 문화영성, 사목영성
접수: 2021년 12월27일(월)~1월10일(월)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전포) / 면접: 1월21일(금) 예정
문의: 02)2258-7814(<http://gcs.catholic.ac.kr>)

2022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교육과정 신입생 모집
대상: 가톨릭교회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내용: 가톨릭신학 26과목을 통신(우편)으로 공부
접수: 2월9일(수)까지 우편접수 가능

돈보스코미디어스쿨 2022년 신입생 모집
과정: 중·고등과정(14세~24세) / 문의: 02)833-0930
검정고시반, 독서, 사회, 영어, 체육, 미디어, 바리스타, 제과제빵, 미술, 사진 / 남자기숙사 운영
블로그: blog.naver.com/donboscoschool
곳: 양천구 신월3동 살레시오미래교육원

가톨릭 꽃동네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보건·복지·상담심리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대학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 충북 1위,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내 집 같은 기숙사 신입생 100% 입사 가능 / 문의: 043)270-0100~0102
원서접수: 2021년 12월30일(목)~1월3일(월)
모집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예수회센터 현장 및 동영상 강좌(3월 개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이미지를 통한 신비 탐구(신설)	현장 강좌: 매주(수) 10시~12시 동영상 녹화 강좌: 링크 발송	홍기령 교수
가톨릭 사회교리	현장 강좌: 매주(수) 14시~16시 동영상 녹화 강좌: 링크 발송	전주희 수사
구약성경 아가페마: 하느님께 바치는 노래들-시편	현장 강좌: 매주(목) 10시~12시 동영상 녹화 강좌: 링크 발송	주원준 박사
영신수련 정기 강좌-영신수련과 성서	현장 강좌: 매주(월) 14시~16시 동영상 녹화 강좌: 링크 발송	임숙희 박사

모집

창5동성당 교중미사 지휘자 모집

대상: 성당 성가대 지휘 유경험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직 사본
1월28일(금)까지 방문 및 우편 접수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 및 지도신부 면담 후 채용
문의: 010-3759-7288, 02)990-5684

등촌7중합사회복지관 밀반찬 조리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어르신 및 장애인 밀반찬 2~3찬(45인분) 조리
때: 매주(월·목) 13시30분~15시30분 / 문의: 02)2658-6521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1월5일(수)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오순절평화의미사 1월 후원회 미사 / 문의: 051)782-0765
때, 곳: 1월6일(목) 11시(미사),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76-0457
군중신부 특강 및 군 복무중인 청년과 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1월3일(월) 14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고해성사, 미사 /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1월8일(토) 오전 10시~낮 12시, 가톨릭회관 1층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둘째주(토) 1월8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 문의: 02)727-2489

성공품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1월7일(금) 14시~16시 / 지도: 양창우 신부
곳: 가톨릭회관(전철 4호선 명동역) 7층 / 문의: 02)929-2977
코로나19 상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북방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10-6219-1575
대상: 북방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회비 없음
집전: 김운상 신부(해외선교봉사국 차장)
때, 곳: 1월6일(수)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

갯세마니 첫 목요일 성시간·미사(말씀의 선교 수도회)
대상: '예수성심의 온전한 사랑' 말씀의 치유를 바라는 신자 / 문의: 02)312-7211 선교 사무실
때, 곳: 1월6일 19시~2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예수성심 신심미사·기도(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내용: 연령과 가정을 위한 기도와 미사(중식 미제공)
때, 곳: 1월7일(금) 11시30분, 절두산성지(전철 2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2)3142-4434

인미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여성 심리·가족갈등

전화 상담: (월~금) 10시~16시 / 문의: 02)990-9366
전·진·상 영성센터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ijscen.or.kr
수지애니에그램-자기 본질 찾기 및 자기인식을 위한 교육: 1월14일(금)~1월15일(토) 10시~17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리파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 및 의존자 가족교육과 자녀모임 상시 운영
치료재활 여성반 신규 개설: 매주(수) 19시
때: 주·야간 운영시간 (월~금) 9시~17시, (화~목) 19시~21시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 부부, 진로, 영성상담, 진로검사, 화상(Zoom) 상담 가능 / 소장: 이찬 신부
문의: 010-9295-5912(www.dstcoun.net)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 및 미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명동) 501호
개인 상담	정서 및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및 심한 우울과 불안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교육	매체(모래·미술) 상담사자격과정-1월22일~2월19일 (토) 10시~15시(5주)

직원모집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사무원 모집

분야: 입양사무 및 홍보 담당 1명(계약직)
대상: 사회복지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
접수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모집 공고 참조 / 문의: 02)764-4741~3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경찰사목위원회 직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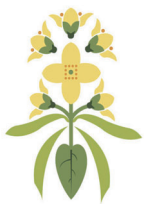
분야: 홍보·사업기획, 운영 / 1년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견진신사 받은 초대졸자, 디자인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연간 프로젝트 경험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직 사본
1월23일(일)까지 이메일(catholicpolice1@seoul.catholic.kr) 접수, 이후 면접 / 문의: 02)742-9473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매월	수도원	010-2140-7414
마리아의 종 수녀회	1월9일(일)	분원(돈암동)	010-6826-6882
성심수녀회	1월15일(토) 14시~17시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3993-0316 남궁영미 수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pjesupassio@gmail.com)
천주교서울교구제천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관계를 치유하는
33가지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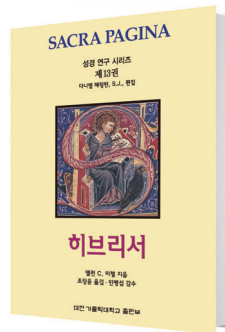


신간

관계를 치유하는 33가지 지혜

김영선 지음
생활성서사 | 304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이 책을 통해 성경에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의 인물이 여러 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관계 속에 있는 나를 되돌아보며 그 속에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법과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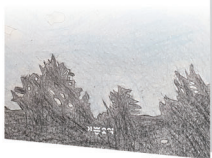
신간

히브리서

앨런 C. 미첼 지음
기쁜소식 | 568쪽 | 2만5천원
문의: 02)762-1194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썼으며, 실제 서간이 아닌 서간의 특징들이 덧붙여진 설교문이고, 수신인도 실제 히브리인들이 아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설명한다. 원문을 주의 깊게 분석하여 현대의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나는 오늘 나를 존중하며
살기로 했다: 우리의 수치를
치유하는 40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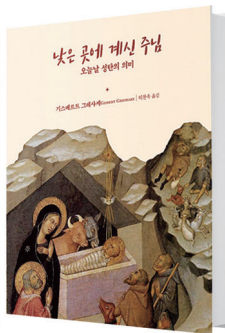


신간

나는 오늘 나를 존중하며 살기로 했다

문종원 지음
기쁜소식 | 196쪽 | 1만2천원
문의: 02)762-1194

수치심의 다양한 종류, 발달 단계별로 가지게 되는 수치심과 그 치유 방법을 이야기한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영적 수치심을 설명하고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 말한다.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판단하며, 제대로 치유하도록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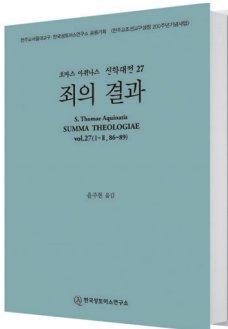


신간

낮은 곳에 계신 주님

기스베르트 그레사케 지음
분도출판사 | 120쪽 | 1만원
문의: 02)2266-3605

성탄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이 사람이 되 시어 낮은 곳에 임하시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책은 여러 사상가와 성인의 예화와 그리스도교 성화를 통해 성탄이 우리 안에서 늘 새로이 일어나는 사건임을 분명히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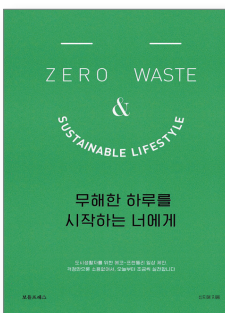


신간

신학대전 27 죄의 결과

토마스 아퀴나스 지음
기쁜소식 | 212쪽 | 4만원
문의: 02)762-1194

이 책은 죄의 결과에 대해 상세히 다룬다. 죄(罪)의 신비는 인간 자유의 신비와 깊이 맞닿아 있는 동시에 악(惡)의 신비와도 연결되어 있다. 자유의 신비는 궁극적으로 하느님 사랑의 신비와 깊이 맞닿아 있다. 성 토마스의 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죄가 지닌 깊은 신비를 알아갈 수 있다.



특집

cpbc 라디오 기후 특집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제5편)

- 1월 첫 번째 도서: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신지혜)'
방송시간: 1월 17일~22일 8시 45분~9시
문의: 02)2270-2114
(다시보기: cpbc라디오 유튜브 채널)

cpbc 라디오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책을 선정해 저자가 낭독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위기의 순간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지속 가능한 생활 양식을 제안하고 공존을 꿈꾸며 긍정적 변화들을 나눈다.

2022년도 본당 사목 목표

“내일의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 나아갑시다.”

2021년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2020.11.29-2021.11.27)’으로 선포된 해였습니다. 그동안 ‘전대사 수여 순례지’로 지정된 명동성당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유해를 모시고, 200년 전 신부님의 생애를 ‘기억’해보았습니다. 또한 “당신이 천주교인이오?”라는 희년 표어를 통해 현대를 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 일상 회복의 날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서울대교구 공동체는 2022년을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주제로 사목교서를 발표하였고, 이에 맞추어 명동성당은 2021년 본당 사목 목표로 정했던 ‘복음화에 함께 하기 위하여 기억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에서 2022년 ‘내일의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로’란 사목 목표를 간직해봅니다. 또한 명동성당은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체되었거나 중지된 본당 내 여러 활동과 봉사들을 재개하여 복음의 희망과 생동감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번 세계주교시노드의 핵심 주제어인 사명, 친교, 참여의 정신을 살아가는 본당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하고자 합니다.

1. 내일을 향한 믿음과 사명의 공동체를 간직합니다.

명동성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축소되거나 침체되었던 ‘예비자 교리’ 및 ‘본당 내 단체 활동’ 등을 이전과 같이 확대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다시금 복음화를 향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활력을 되찾고자 합니다. 특별히 본당 소속 신자 교적 정리를 통하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신자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를 통해 신자들이 내일을 향한 믿음과 사명의 공동체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내일을 향한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를 함께합니다.

명동성당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만남을 통해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명동성당은 ‘성지순례’나 ‘친교행사’ 등 함께 하는 공동체 만남의 시간, ‘미사’, ‘전례’, ‘신심활동’ 등 함께 하는 공동체의 거룩한 시간, 그리고 ‘봉사’와 ‘나눔’ 등 함께 하는 공동체 사랑의 시간을 가지며, 내일을 향한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3. 내일을 향한 참여로 공동체 미래의 희망을 그려봅니다.

명동성당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려움의 시간에서 벗어나 희망찬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명동성당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명동성당 시비(詩碑)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명동의 내일을 위한 ‘그림 그리기’와 ‘기부천사 참여 독려’ 등을 통해 명동성당에 신자들의 손으로 빚어낸 희망과 참여의 손길들을 놓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명동성당과 교회의 미래에 필요한 신자들의 의견을 들으며 내일을 향한 희망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복음화를 향한 신자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예전의 명동성당의 모습을 넘어 그보다 더욱 희망과 생명력이 넘치는 본당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올해도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함께 하면서, 서로를 위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모두가 본당 공동체 안에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022년 다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임신부 조 학 문 (바오로)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보좌 파비아노 레베자니 신부

《 축하합니다 》

주님 공현 대축일인 오늘은 본당 장애인신앙 교육 담당 김주신 (멜키올) 보좌 신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또한 오는 1월 4일(화)은 본당 청년 담당이신 서 엘리사벳 씨튼 수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영육 간에 건강하시도록 축일 맞으시는 신부님과 수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상설 고해성사 재개

1월 2일(주일)부터 상설 고해성사를 재개합니다.

요일	고해시간	고해장소
화~금	11:00 ~ 18:00	상설고해소
토요일	11:00 ~ 19:00	
주 일	10:00 ~ 19:00	

◎ 1월 예비신자 교리반

코로나19 백신 접종(2차 접종까지) 완료자에 한하여 교리반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고, 1월 2일(주일) 오전 10시 30분 교구청본관 401호에서 있을 예비신자 환영식에 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청 불가)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목요반	오후7:30	교구청본관 402호	김주신 (멜키올) 신부
토요반	오후4:00	교구청본관 401호	이 마리헬렌 수녀

- 2개 반 중 택일하여 신청, 각 반 50명씩 선착순 접수
- 준비물 : 등록비 1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6개월 과정으로 매주 2시간 수업, 미사 참례 필수

◎ 본당 재정 및 교무금 책정

어려우신 중에도 2021년 한 해 동안 정성껏 교무금을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본당의 재정은 현금, 교무금, 헌배 봉헌금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헌배 봉헌금이 명동(옛 계성여고) 발전기금으로 교구에 전액 봉헌되고 있으며, 신자분들께서 봉헌해 주시는 현금과 교무금만으로 본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무금 봉헌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기준, 본당에 교적을 둔 세대수는 총 19,595세대이며, 이 가운데 교무금을 책정하신 세대수는 2,773세대로 전체 14.1%에 불과합니다. 아직 정산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능하신대로 교무금을 납부해 주시고, 2022년도 교무금 책정에도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설 합동 위령미사 》

2월 1일(화) 「설」 당일 거행되는 모든 미사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설 합동 위령미사에 미사 예물 접수하실 분들은 1월 30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하시거나 설 당일 합동 위령미사 시작 전, 제대 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직접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미사 ☞ 오전 7시, 10시 / 오후 6시, 7시

◎ 2022년도 하반기 명동대성당 혼인 예약 추천

- 추천일시 · 장소 : 1월 14일(금) 오후 2시 / 대성당
- 혼인예약기간 : 2022년 7월 ~ 12월
- 필수준비사항 : ① 교적증명서 1부 (신랑 ·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 50만원 (현금 또는 수표)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을 필히 확인하십시오!

◎ 늘푸른 청년전례단 '아뉴스 데이' 신입단원 모집

- 주요활동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늘푸른 청년미사의 전례 봉사, 청년봉사부와 활동 참여 및 봉사
- 모집대상 : 33세(1989년)~42세(1980년) 천주교 신자로서 매주 책임감 있게 전례단에서 봉사할 수 있는 청년
- 모집기한 : 2022년 1월 2일(주일)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공지 참조

※모집기한 후 세부일정은 지원자에게 개별 공지됩니다.

◎ 2021년도 하반기 견진자 감사예물

지난 주일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감사예물로 8,643,000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2/20-12/26).....74,874,130
 - 구유예물 (12/25).....5,891,000
 - 주님 성탄 대축일 헌금.....29,454,000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헌금...18,351,000
 - 감사헌금 (12/20-12/26).....14,572,000
- 강 마리아 / 강 바로톨로메오 / 김 마리스텔라
김 미카엘 / 김 발렌티노 / 김 아기안나
김 안나 / 김 에스테르 / 김 요안나 / 도 로사
박 소화데레사 / 서 레지나 / 송 안젤라
신 글라라 / 신 베르다 / 심 글라라
안 미카엘라 / 연 안젤라 / 우 안드레아
이 마르티나 / 이 미카엘라 / 이 베드로
이 비리시다 / 이 소피아 / 이 에다나
이 프란시스 드살 / 이 프란치스코
임 사무엘 / 정 글라라 / 정 안젤라
진 아벨로니아 / 한 그레고리오 / 현 막달레나
홍 마리아 / 황 데레사 / 황 아네스
황 크리스티나 / 익명(3)